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벼간조기가 작동되는 정미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벼간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냉방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던 집이었습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뼈죽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칙칙 빨래를 개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임당'.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어른아이입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겨진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발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와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동생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축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식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후원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